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이모저모

코로나 확진 후 출산 외국인 산모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인도적 지원

05 유튜브들여다보기

심장혈관질환 예방, 가장 중요한 점?
심장내과 전문의 12인의 선택은!

06 특집

극초고해상도 11.74T MRI 개발
마그넷 현장성능평가 성공

07 굿닥터

파킨슨과 치매는 어떻게 다를까
신경과 성영희 교수



5월 굿닥터

신경과 성영희 교수 증가하는 파킨슨병! 파킨슨병에도 고위험군이 있을까

파킨슨병은 우리 뇌 속 여러 신경전달물질 중 운동에 필요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돼 가는 질환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연간 1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파킨슨 팬데믹'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관련 내용 07면

가천대 길병원 개발 중인 11.74T MRI 핵심부품 '마그넷' 현장성능평가 성공

가천대 길병원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극초고해상도 11.74T MRI의 핵심 부품인 마그넷의 현장 성능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천의 이름으로, 뇌질환 정복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 11.74T MRI 개발,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 0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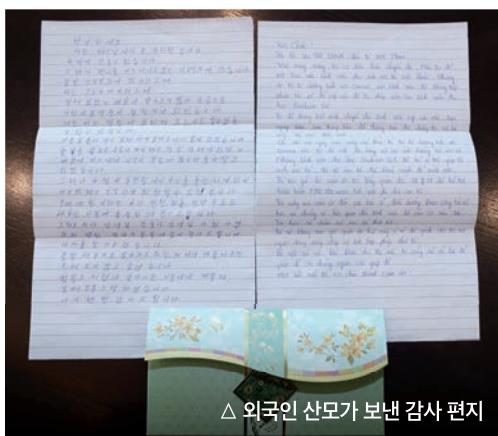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



코로나 확진 산모,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기금 지원

가천대 길병원, 코로나19 산모 180명 입원 치료, 90명 출산 도와(2022년 3월 현재)



A(30)씨는 3월 23일 기침 등 증상을 느껴 남편 B(35)씨와 함께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긴급하게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이튿날인 25일 3.07kg의 건강한 아들을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출산을 했지만 아이의 격리 비용이 문제였다. A씨 부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임신으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남아있던 상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주민노동자지원단체의 도움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

서 출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마련해 두었지만, 산모의 확진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되면서 아기도 격리해야 하는 등 비용이 늘었다. 확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또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게 되면서 외국인 기준의 치료비 7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A씨 부부를 ‘가천메디컬라이온스 클럽’ 치료비 지원대상으로 결정했다.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은, 2020년 가천대 이길여 총장이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3억원을 가천대 길병원에 봉사 기금으로 기탁한 것을 계기로 창단한 봉사조직이다. 흉부외과 박국양 교수를 단장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를 초월한 인도주의적 활약에 대한 수상인 만큼, 국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정, 그들의 이른둥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봉사하고 있다. A씨는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이 안된다고 해 길병원에 실려올 때는 아기에게 이상이 생길까봐 두려

움에 떨었다”면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신 병원 관계자분들,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은혜 잊지 않고 살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국양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단장은 “언어, 치료비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산모가 무사히 출산을 하게 돼 다행이고, 이길여 총장님께서 박애, 봉사, 애국의 설립 이념 실천으로 받은 상금이 이렇게 또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은 코로나19 중증거점전담 병원으로서 확진 산모의 치료와 출산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21년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180명의 확진 산모를 치료했다. 이 중 90명(제왕절개 80명, 자연분만 10명)은 격리 치료 중 가천대 길병원에서 건강하게 출산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8년 인천지역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센터 내에 위치한 분만실 및 수술실은 음압시설, 수술 전처치실(2중 차단시설) 등 국내 최고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7회 연속 1등급
제8차 천식 적정성 평가도 높은 점수 받아**

가천대 길병원은 3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해 발표한 제7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7번의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게 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률은 12.7%에서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천식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가 이뤄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호흡기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 동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만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 3개 평가지표를 평가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3개 영역 모두 높은 점수

를 받아 5등급 중 가장 높은 1등급을 획득했다. 제8차 천식 적정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의료질 1등급을 유지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천식 평가는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가천대 길병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천식치료 약제 처방환자 비율 등 3개 영역 7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만성호흡기질환 관리와 치료 부분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돌잔치 비용 병원 기부했던 건율이네
가천대 길병원에 두 번째 기부금 쾌척**



돌잔치 비용을 어려운 이웃의 치료비로 기부했던 건율이네 가족이 다시 한 번 선행을 베풀어 귀감

이 되고 있다. 노건율군의 부모 노해일, 이승혜씨 부부는 4월 4일 가천대 길병원에 이웃사랑 치료비 200만 원을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아버지 노해일씨가 대표로 이날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을 만나 치료비를 전달하고 가족의 뜻을 전달했다. 어머니 이승혜씨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로, 얼마 전 퇴직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소중한 가정을 꾸리게 된 터전이 되었던 직장에 대한 감사함을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돋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었고,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이 많은데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씨 부부는 2020년 6월에도 아들 건율이의 첫돌을 맞아 돌잔치를 여는 대신 잔치비용 150만 원을 병원에 기부한 바 있다. 김양우 병원장은 “가정에서 선뜻 기부를 결심하기 쉽지 않을텐데 두 번이나 환자와 이웃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준 것에 감사드리며, 건율이가 부모님의 성정을 닮아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제50회 세계 보건의 날 맞아
국무총리상 수상**

인천권역외상센터 이끌고
인천지역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앞장

이정남

인천권역외상센터장 겸
공공의료본부장



인천간호사회 정기총회서

인천시장상 수상

급성기 뇌졸중 환자 위한
시스템 정착,
간호사 보수 교육 등 기여



김경희

간호본부 팀장

★★★ 새로 왔습니다 ★★★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

▶ 진료분야

HIV 감염, 림프절 질환,
결핵, 발열질환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			●	



**척추센터(신경외과)
유병래 교수**

▶ 진료분야

경주 질환, 요추 질환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오후	●		●		●



산부인과 오수현 교수

▶ 진료분야

부인과, 골다공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오후				●	●



감염내과 홍신희 교수

▶ 진료분야

발열질환, 예방접종,
HIV 감염, 불명열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오후				●	



신경외과 신동원 교수

▶ 진료분야

뇌종양, 두개저질환, 내시경수술,
두부외상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오후	●			●	●



외과 박지현 교수

▶ 진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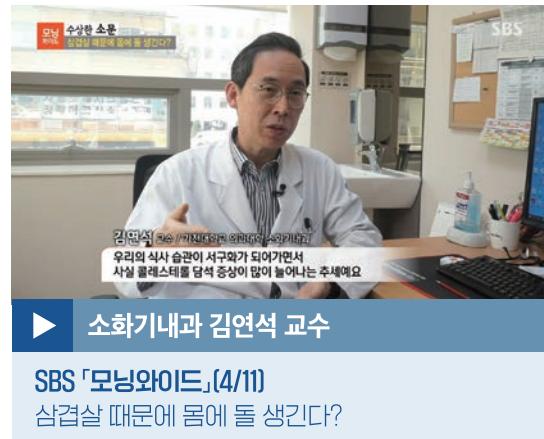
위암, 위장관질환, 비만대사수술,
복강경수술

진료	월	화	수	목	금
오전	●		●		
오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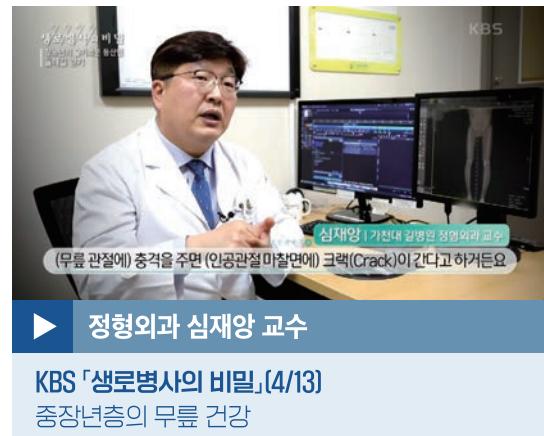
미디어 들여다보기

미디어
핫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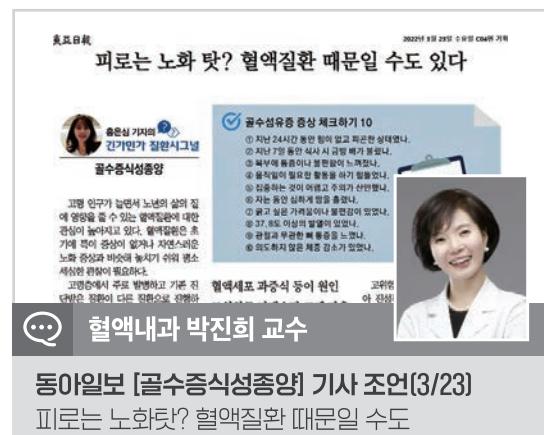
▶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KBS 「9시뉴스」(4/4)
코로나19, 일상회복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TBN경인교통방송 「건강한 내일」(3/25)
중년층의 자살 증가▶ 신경외과 김우경 교수
YTN 「뉴스」(3/31)
초고해상도 MRI 핵심 부품 개발▶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현 교수
OBS 「뉴스」(4/6)
파리용 헬륨가스 흡입 사고 위험성▶ 소화기내과 김연석 교수
SBS 「모닝와이드」(4/11)
삼겹살 때문에 몸에 돌 생긴다?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MBC 「기분좋은날」(4/13)
내 몸 살리는 지방 관리법▶ 정형외과 심재양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4/13)
중장년층의 무릎 건강▶ 당뇨내분비센터 이시훈 교수
MBC 「기분좋은날」(4/18)
똑똑한 당뇨관리 방법

▶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

조선일보 「알쏭달쏭 당뇨 관리」 기사 조언(3/23)
청년층 혈당 높다면 경각심▶ 혈액내과 박진희 교수
동아일보 「골수증식성종양」 기사 조언(3/23)
피로는 노화탓? 혈액질환 때문일 수도▶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경인일보 「인천지역 5년간 진료 분석」 기사 조언(3/29)
행동·틱 장애 진료 늘어난 원인 분석

▶ 신장내과 정우경 교수

중앙일보 「건강을 지키는 차(茶) 복용법」 기사 조언(4/4)
기저질환 있는 경우 차 주의해서 마셔야▶ 정신건강의학과 조서은 교수
조선일보 「명품백 오픈런 중독」 기사 조언(4/6)
명품 중독, 일상생활 지장있다면 건강 적신호▶ 신경과 이영배 교수
조선일보 「두피 가려움」 기사 조언(4/8)
두피 가려움, 신경과 질환 가능성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심장혈관질환 예방! 이것이 가장 중요해! 심장내과 12인 명의의 선택은?



쉼없는 수축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심장! 심장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심장내과 의료진 게릴라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금연, 금주,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관리, 수면습관, 스트레스 관리, 유산소 운동, 정기검진, 수분섭취, 식습관, 겨울철 건강관리, 체중관리 등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심장건강 예방 항목 중에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심장내과 12인 명의들의 선택과
그 이유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요즘 핫(HOT)하다는 포켓몬빵! 가천대 길병원에서 구하기 도전! 그 결과는?



국내최초! 대학병원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는 포켓몬빵 구매시도 후기! 병원 내 편의점은 물론 병원 인근 편의점을 찾아다니며 포켓몬빵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과연 포켓몬빵을 살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 스크린을 통해 병원 주변 13군데 편의점을 함께 둘러보아요.

의료와 병원에 관련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
길병원TV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개발 중인 11.74T MRI 핵심부품 마그넷 현장성능평가 성공 확인



송도 뇌질환센터에서 ASG사 기술책임자 및 국내 평가자문위원 등 참석한 가운데 현장성능평가 실시

가천대 길병원이 이탈리아 ASG 슈퍼콘덕터스(ASG Superconductors, 이하 ASG)와 공동 개발 중인 초정밀 뇌전용 11.74T MRI의 핵심 부품인 마그넷(Magnet)의 현장성능평가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 위치한 가천브레인밸리에서 개발 중인 11.74T MRI의 마그넷 현장성능평가를 위해 3월 30일 이탈리아 ASG사 기술책임자들과 국내 저명 평가자문위원들과 함께 마그넷자장이 안정도와 균일도를 유지하면서 목표에 이르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 및 감독을 실시했다. 현장성능평가는 1) 11.74T MRI용 마그넷의 내부 온도가 2.2K(켈빈)에 도달하는지, 2) 2.2K 온도에서 마그넷의 세기가 11.74T에 도달하는지, 3) 온도와 자장의 세기를 유지한 상태로 자장의 균일도가 모든 방향에 서 균일한지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이뤄졌다.

주요 3가지 부분 성능 목표 도달 코일, 전원장치 등과 결합 남아

이번 성능평가 결과 3개 주요 성능이 연구 목표치에 성공적으로 도달해 다음 단계 연구의 진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 평가가 실험실에서의 측정 값이 아닌 실제 공사 및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가천브레인밸리 뇌질환센터 현장에서 이뤄진 성능평가

인만큼 11.74T MRI 시스템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천대 길병원 연구진들은 이번에 성공한 11.74T 마그넷에 자체 개발한 경사자장 코일, RF 코일, 전자장비, 전원장치 등과 결합해 금년 내 세계 최초의 다채널 다힘종 동시획득 11.74T MRI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74T MRI용 마그넷은 극초고해상도 MRI 시스템 개발의 핵심부품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11.74T MRI용 마그넷 설계, 제작 및 설치과정의 고난도 기술을 ASG사와 공유하면서 2018년 12월 이탈리아 ASG사 현지에서 11.74T MRI용 마그넷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후 선박을 이용해 한국으로 이송, 2020년 12월 송도 가천브레인밸리 뇌질환센터에 안전하게 설치하였다.

11.74T MRI 개발 성공 시 3T에 비해 1만배 선명한 뇌영상 기대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부원장(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은 “11.74T MRI 시스템 개발로 얻은 초고해상도 뇌영상은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뇌출중 등 난치성 뇌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와 나아가 신약개발 등을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부평가자문위원인 극저온기연구센터장 하동우

박사(한국전기연구원)는 “MRI용 초전도 마그넷이 과냉각 조건에서 11.74T의 균일한 자장 값을 만족하였으며, 향후 영상 시스템까지 완료하면 세계 최고의 MRI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전도 마그넷 설계제작 전문가 제상현 수석연구원(KISWIRE)은 “이번에 설치된 11.74T 초전도 마그넷은 적합한 평가 절차와 방법에 의해 요구사항을 만족하였다. 세계 최고 자장 마그넷의 성공적인 개발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9년여 동안 국내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대상으로, 산(産)·학(學)·연(研)·병(病)이 연계하여 기초 및 중개·임상 연구를 거쳐 실용화로 이어지는 육성 R&D 사업을 선정, ‘프로젝트’ 추진 단위인 유닛별로 연간 25억 원 내외를 지원하여 왔다. 이에 가천대 길병원은 2014년 뇌질환 진단기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기관으로 선정(사업명·노인성 뇌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극초고자장 11.74T MRI 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정준영 교수)되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56억 원의 보건복지부 연구비와 약 73억 원의 가천대 길병원의 추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11.74T MRI 시스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왔다.



신경과 성영희 교수

“렘수면행동장애 등 파킨슨병 전구증상 지나치지 말아야... 격렬한 운동 신경 퇴행 둔화에 도움”

2010년 6만명에 해당하던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20년에 11만명을 넘어 10년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연간 13% 정도 증가해 ‘파킨슨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40~50대의 파킨슨병 유병률이 치매보다 9배 높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연령에서의 발병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지만, 파킨슨병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Q1 증상으로만 파킨슨병을 의심하기 어려워요

파킨슨병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질환으로, 많은 환자들이 신경과에서 진단받기 전 이유를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떨림이나 무표정, 보행장애 등을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의심하기보다 ‘나이들어서, 피곤해서, 우울해서’ 등으로 넘겨짚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는 등 편안한 자세로 있는데 손이 떨린다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렵거나, 자고 있는 상태인데 발길질을 하는 등 움직인다거나 하는 증상은 파킨슨병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Q2 파킨슨병은 치매의 전 단계인가요

파킨슨병과 치매는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루이소체 치매는 파킨슨 증상이 초기에 동반될 수 있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시점의 환자들 중 30% 정도는 가벼운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이 중 절반정도는 5년 이내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파킨슨병도 가족력에 영향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유전자 이상에 의한 파킨슨은 드뭅니다. 다만, 파킨슨병 발병 연령이 40대로 젊다면 가족력을 추적해보기도 합니다. 가족력보다는 파킨슨병 전

구증상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변비도 전구증상 중 하나이고, 특히 렘수면행동장애(수면 중 꾸는 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게 됨)도 파킨슨병 전구증상의 하나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4 파킨슨병은 운동이 중요하다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파킨슨병 치료에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운동이라도 파킨슨병에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 초기라면 자전거, 러닝머신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운동보다는 격렬한 운동이 좋습니다. 물론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퇴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은, 움직임, 보행과 같은 운동 증상뿐 아니라 우울, 인지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Q5 파킨슨병, 근본적인 치료는 안되나요

아직까지 파킨슨병 치료는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인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을 제거하기 위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환자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만든 역분화 줄기세포기술을 임상에 적용하는 사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신경과 성영희 교수

- ▶ 진료분야 : 파킨슨병, 본태성 진전증, 안검경축, 근긴장증
- ▶ 약력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
대한신경과학회 수련위원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2018추계학회 우수연제상

뇌종양 일종 '고립성 섬유종', 등급 따라 생존기간 20배 차이 '극단'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신동원 교수 연구, 등급 따라 약 20배 차이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세포종 환자 분석...남성, 수술시 완전 절제도 예후에 긍정

뇌종양의 일종인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세포종은 종양 등급이 낮고, 낮은 연령, 남성, 그리고 수술로 완전절제를 했을 때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등급 종양과 3등급 종양 간의 생존기간은 약 20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신동원 교수가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세포종으로 진단된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전체 생존기간(OS)과 재발없는 생존기간(RFS) 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세포종은 두개 내(머리뼈 속) 질환의 1% 정도를 차지한다.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양성 종양 중 가장 흔한 질환인 뇌수막종과 영상의학적으로 감별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별도의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뇌수막종과 다르게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세포종은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악성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두개 외(머리뼈 바깥)로 전이가 되기도 한다.

연구 대상자는 남성 41명(54%), 여성 35명(46%) 등 총 76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4세,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85.2개월이었다.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30.2%), 운동 기능 저하(18.4%) 등이었다. 신 교수는 2016년 WHO 종양 등급 분류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한 뒤 예후를 분석했다. 1등급은 3명(4%), 2등급은 54명(71%), 3등급은 19명(25%)이었다.

연구 결과, 1등급군의 평균 생존기간은 218개월이었고, 2등급군은 137개월이었지만 3등급은 10.5개월로 매우 낮았다. 1등급군과 3등급군의 평균 생존기간이 약 20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등급에 따른 차이가 컸다. (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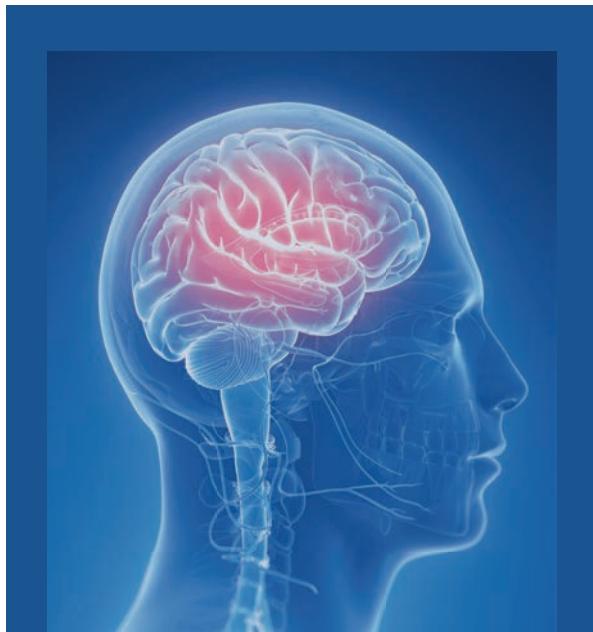
(표1)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세포종 진단 환자 예후 분석

	인원	평균 OS(개월)	두개 외 전이(개월)	평균RFS(개월)
1등급	3명	218	-	-
2등급	54명	137	81	129.6
3등급	19명	10.5	13	126.1

또한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세포종이 두개 외로 전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등급군은 81개 월이 걸렸던 반면, 3등급은 13개월 만에 전이가 이뤄졌다.

아울러 평균 재발없는 생존기간의 경우 2등급군은 129.6개월, 3등급군은 126.1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변량분석으로 각 요인별 재발없는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성별의 경우 '남성(HR 1.776)', 나이의 경우 '45세 이하(HR 2.639)', 수술 방법은 '완전 절제(HR 0.001)'가 생존기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적 관찰 기간 중 생존자 수는 1등급군은 모두 생존한데 비해 2등급군은 36명(66.7%), 3등급군은 12명(63.2%)이었다.

신동원 교수는 "높은 등급의 종양은 낮은 등급의 종양보다 생존기간이 더 짧았고, 두개 외 전이도 더 빠르게 일어났다"며 "뇌종양의 경우 등급에 따라 생존기간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3월 25일 COEX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Intracranial solitary fibrous tumor/hemangiopericytoma: tumor re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treatment outcome via the 2016 WHO classification'라는 제목으로 발표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신경외과 신동원 교수

▶ 진료분야

뇌종양, 두개저질환, 뇌내시경수술, 두부외상, 소아

▶ 약력

2021 대한두개저학회 이원상 학술상 수상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정회원

대한신경종양학회 회원

대한두개저학회 회원

대한뇌종양학회 정회원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하는 통합내과를 아시나요?

가천대 길병원, 2017년 인천 최초로 입원전담전문의제 도입하고 통합내과 병동 운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상주, 입원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제공
병동에서 무선초음파로 빠른 진단, 치료한 사례도

속쓰림으로 입원했던 70대 환자가 통합내과 병동에서 휴대용 무선 초음파 소논을 통해 담낭염을 발견, 치료해 건강을 회복했다.

올해 79세인 이병옥(여)씨. 이 씨는 4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이 씨는 약 복용 후 속쓰림의 원인이 약에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진 이 씨는 치료를 위해 지난 3월 초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했다. 외래 진료에서 이 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통합내과 입원을 선택했다.

각종 검사와 경과 관찰, 치료가 이뤄지던 입원 4일 째. 이 씨는 오후 갑자기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통합 내과 병동에 상주하는 입원전담 전문의 통합내과 라한나 교수는 즉각 휴대용 무선 초음파 '소논'으로 환자의 신체를 진찰했다. 환자의 병상 옆에서 전문의가 즉석에서 초음파 진단을 시행한 것이다. 이는 가천대 길병원과 힐세리온(Healcerion)이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 초소형 스마트 초음파진단기기 '소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힐세리온 류정원 대표는 가천의대 출신 의사로서 진

료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고성능의 초음파 기기를 전문의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논'을 기획한 바 있다.

이 씨는 입원 첫날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급성 담낭염이나 담낭 결석은 발견되지 않았었기에 처음에 감별 진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라 교수는 초기 복부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급성 담낭염의 통증이 환자처럼 명치쪽 통증으로 방사(방사통)해 표현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급성 담낭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소논으로 복부 여러 부위를 진찰했다. 이후 이뤄진 정밀한 초음파 검사에서 이 씨의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고, 담낭 주위에 액체저류(fluid collection)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 교수는 "이 씨에게 급성 무결석 담낭염이 의심돼 상의 후 특수 내시경 초음파(EUS)를 사용해 다른 질병은 없는지 검사했고, 다른 질병 가능성을 최종 배제한 후 진단을 확실히 해 외과와 상의해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다"며 "진단 당일 소화기내과 김연수, 김의주 교수, 외과 교수들과 긴밀한 협진을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수술을 진행해 이 씨가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협진해준 교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발견이 늦어져 합병

증이 발생하면 고령인 이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씨는 수술 후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017년 인천 최초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내과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병동 내에 상주해 환자들의 병력 청취부터 검사까지 진단과정을 두루 살핀다. 또 응급치료, 약물치료, 검사 및 상담, 영양관리 등 입원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이는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축소, 안전사고 감소 등의 효과로 이어진다. 실제 올해 상반기 환자 입원경험평가에서 통합내과가 1위를 한 바 있다.

라 교수는 "진료시간은 물론 회진시간 외에도 환자들이 진료실로 찾아와 궁금한 점을 묻고 치료 상담을 한다"며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속 의사처럼 환자를 돌보고 싶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하지만,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몸과 마음 모두를 치료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프로그램 '윈드' 운영 클릭 한 번으로 봉사활동, 공모전 참가하고 장학금도 받고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학생들의 교내 공모전, 봉사활동, 동아리 등 교과 이외의 비교과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가천대는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활동 이외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 내 ArTechne센터, 가천인권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아름샘봉사단, 의사소통센터 등 다양한 부서에서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는 다양한 부서에서 주최하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윈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생들은 대학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해 클릭 한 번으로 활동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윈드시스템 도입으로 비교과 활동 참여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천대는 지난해 35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58,347명이 참가했다. 지난 2020년에 비해 참여인원(총 339개 프로그램,



△ 가천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프로그램 '윈드' 운영

39,926명 참여)이 약 46% 증가했다. 가천대는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기동안 참여 비교과 활동별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마일리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가천대 윤원중 교육혁신원장(부총장)은 "전공 중심의

교과교육만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 주역을 키울 수 없다. 다양한 경험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암·당뇨연구원 박사 3명, '2022년 세종과학펠로우십' 선정 젊은 연구자의 아이디어로 5년간 의과학 연구 앞장선다



△ 백미옥 박사, 박준영 박사, 김혜연 박사(왼쪽부터)

가천대학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김혜연, 박준영, 백미옥 박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젊은 과학자들의 단독 연구를 지원하는 2022 세종과학펠로우십 과제에 최근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젊은 과학자가 원하는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해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핵심과학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1인당 1억3000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5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신설했으며 국내 펠로우십 중 국내 최고수준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젊은 과학자가 펠로우십을 통한 연구 몰입을 장려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 등 5개 분야로 나눠 최종 300개 과제가 선정됐다. 김혜연 박사(지도교수 홍선택)는 '지방대사 리프로그래밍을 통한 유방암 전이 치료기술 개발', 박준영 박사(지도교수 강동우)는 '난치성 쥐장암 및 뇌암 환자 맞춤형 표적 나노 소포체 개발', 백미옥 박사(지도교수 윤미섭)는 'mTORC1 타겟 생체 유효 펩타이드 기반 근육 증강제 개발 연구'를 주제로 5년간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3명의 박사는 모두 가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동안 우수한 SCI(E) 저널에 제1저자로 여러 논문을 게재해 왔다. 앞으로도 연구에 몰입, 의과학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가천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선정 실무능력 갖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공학인재 양성한다

가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 2022년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7년 까지 6년간 9억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은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 및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들이 산업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다. 가천대는 성균관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공학인재를 양성한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천대는 1단계(2007-2011) 공학교육개선시스템 구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2단계(2012-2021)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미래 신산업 공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이번 사업은 3단계이다. 가천대는 이번 사업을



△ 가천대학교 전경
통해 산업체의 만족도 개선을 통한 지역기반 산학 협력 강화로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밀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고객의 소리

고객이 칭찬한
당신을 칭찬합니다

고객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우리병원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동과 친절을 선물한 우리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수많은 감동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객의 소리는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감염내과 홍신희 교수

코로나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처음에 두렵게 느껴졌는데 홍 교수님께서 매 시간마다 병실로 오셔서 세심히 살펴주신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담당 간호사님들도 우주복처럼 생긴 보호구를 하고 오셔서 불편하실텐데도 우주복 안에서 웃는 모습으로 오히려 환자들을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친절함을 잃지 않고 고생해주시는 의료진분들께 환자 중 한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OO님



신경과 노영 교수

2018년 90대 시어머니, 70대인 제 남편이 함께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막힌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교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헌신, 봉사, 자상함은 물론, 딸처럼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셨어요. 무엇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치매 가족에게도 밤이 오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는 희망을, 용기를 주신 교수님께 가족 모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차OO님



치과 조진용 교수

오늘 임플란트 마지막 날이에요. 오랜 시간 치료받은 보람이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을 만들어주신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한 말씨와 밝은 미소로 대해주셔서 치과 올 때마다 무서운 마음조차 교수님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가고 저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1년 뒤에 뵙겠습니다. 안OO님



산부인과 전승주 교수

전승주 교수님과 윤영 간호사를 칭찬합니다. 시험관 준비와 아이가 자리잡는 과정 중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버거웠습니다. 그 과정마다 함께 해주신 전승주 교수님과 윤영 간호사 선생님. 항상 밝은 미소로 응대해주시는 따뜻한 손길과 섬세한 배려 덕분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던만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했는데 부족함 없이 마음이 채워져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황OO님



심장내과 장영우 교수

저는 지난 1월에 충남에 있는 보건소에서 심전도를 검사를 했는데, 담당 의사가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보라해 급히 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영우 교수님을 만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장 교수님의 미덕이 넘치는 말씀, 항상 자상하고 환자들에게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 천사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유OO님

고객의 칭찬

진료부 | **가정의학과** 김경곤 **감염내과** 이용호(전공의), 홍신희 **산부인과** 김석영, 안선아(전공의), 이광범, 임소이, 전승주 **성형외과** 문혜광(전공의) **흉부외과** 김건우 **심장내과** 장영우 **안과** 이종연 **이비인후과** 우주현 **정형외과** 문도현 **치과** 양대승(전공의), 조진용 **호흡기내과** 전수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동준(전공의) **신경과** 노영

간호본부 | **A108W** A108병동, 손혜빈, 이현혜 **A148W** 김민영 **A158W** 이유진 **A168W** 박지혜 **A78W** 황은화 **A88W** A88병동, 류승하, 이명지 **A98W** A98병동 **EICU** 응급집중치료실 **I106W** 선예지, 윤주성, 이혁 **I116W** I116병동, 김윤희, 송민지, 최서영 **I136W** I136병동, 김소연, 류혜지, 송란희, 이재민 **I146W** I146병동 **I156W** 박재금 **MDR** 김가은, 분만실, 성하나 **R7W** 김은혜, 민노경, 박주환 **R8W** 유혜정, 이윤나 **R9W** R9층병동, 이지은, 조민하 **VIP/신환상담팀** 윤영 **안과외래** 안과외래 응급집중치료실 이현영 **이비인후과외래** 김미정 **인공신장실** 김민희, 변유진, 이승희 **통원치료센터** 이신혜, 통원치료센터 **호흡기내과외래** 호흡기내과외래

진료지원부 | **VIP검진센터** VIP검진센터 **물리치료팀** 김미용 **방사선종양학팀** 유규화, 최희송 **영상의학팀** 김연욱 **진단검사의학팀** 임영욱 **치과외래** 구현선, 안수빈, 유진, 이휘경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온라인수면 위생교육 프로그램

잠에 대한 생각 바꾸기

잠을 잊은 그대에게

암환자 잠을 촉진하는 습관 만들기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집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 신청 및 문의 | 카카오채널 1:1 채팅 또는 전화(032)460-8487

인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는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수면위생, 운동, 영양, 직업복귀, 집단 심리 지지프로그램, 림프부종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032)460-8487

기부는 사랑입니다

72세 남성 조모씨는 오래전 배우자와 헤어져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소식이 끊겼고, 지금은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망을 보수하는 일을 하며 살아온 그는, 고정 수입은 아니어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수입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일거리가 갑자기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인데다, 전부터 말썽이던 무릎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무릎 상태가 더욱 악화돼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보다 더욱 힘든 것은 생활 고였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하던 조씨가 일을 놓게 되자 먹고 사는 문제가 덮친 것입니다. 다행히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생계비와 월세를 지원 받아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가 감면되는 의료급여 대상자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그는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팠지만 단순한 복통으로 생각하고 참았는데, 위장에 천공이 생겨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경과 관찰 끝에 다행히 증상이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아픔이 어느 정도 가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비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 있었습니다. 사회사업팀은 국가 지원제도,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의 도움을 받아 조씨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 [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032-460-3531)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